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9-29 씨네나라 2층 Tel 773-7707 Fax 777-0636 E-mail : acc21@chollian.net http://www.cncr.or.kr

Click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www.cncr.or.kr



2000년 총선시민연대
www.ngokorea.org



예산감시 네트워크
www.0098.or.kr



문화연대 격주간 소식지 제7호
2000. 3. 21. 화요일
발행처 : 문화연대
발행인 : 김정현
편집인 : 이원재

총선연대,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 진행

총선연대는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지역감정 부추기기에 맞서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지난 2일에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3월 1일 유권자 독립선언, '촛불행진', '기금마련전' 등의 유권자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서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을 선언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

문화관광부, 방송위 시행령안 무시

새 방송위원회가 그나마 각계 의견을 모아 지난달 28일 확정해 문화관광부에 넘긴 방송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이 무시되고 있다.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자신의 시행령안을 고집하면서 공청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방송위원 9명이 합의해 마련한 방송위 시행령안은 거의 무시됐다.(4면 이어짐)

예산감시 네트워크 출범 !!

지난 3월 3일 국세청 앞에서는 문화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감시 네트워크 출범식 및 납세자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출범식과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단체들은 정부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납세자 권리를 선언하였다.(3면 이어짐)

서울시 인사동 보존 계획 발표

서울시가 인사동길 보존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2월 인사동 일대 3만 6천 평 내에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보존 조치를 취한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인사동 골목길 보존, 필지를 비롯한 개발 불허, 화랑, 필방 등 인사동 특유의 용도에 한한 점포 허용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오늘 7월에 시행되는 '문화의 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적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문화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함께하는 총선연대

총 선연대는 명동성당 농성 5일째인 3월 7일 전국대표자회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감정 추방과 낙선운동을 위한 국민운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감정 추방에 운동역량 집중
- 국민적 낙선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전개
- 전국적인 유권자 행동 서약운동을 비롯한 유권자 참여 운동 조직
-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부패한 정치인 응징을 위한 정책선거운동 및 선거감시운동 등을 전개

또한 총선연대는 2~3일 안에 각 당을 피고로 공천철회 대상자들에 대한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오는 14일 지도부 회의를 거쳐 낙선명단 발표시기와 낙선운동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에 최영 상임대표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등 지도부 20여 명은 여야 사무총장과 선대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감정 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총선시민연대 기금마련 전시회

일시 : 3월 3일(금) ~11일(토)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대중예술인 소장품경매 / 바자회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

총 선연대는 3월 7일 선거혁명을 위한 (가칭)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을 결성하였다. 결성 취지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유권자 100만표 모으기 운동을 제안한다

우리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열기를 하나로 모아 청년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100만표 모으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소외시켜온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운동을 벌일 것이다.

표로 승부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직된 표이다. 한 표를 가진 개인유권자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였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100만 유권자는 한표, 한표의 가치를 100만 표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자!

우리의 정신은 평범한 유권자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정치변화의 능동적 주체로 나서는 것이다. 평범한 유권자가 책임 있는 주권자로, 지속적인 정치감시자로 참여하는 풀뿌리 유권자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칭) 총선연대 '청년유권자 100만행동'을 통해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양대정신에 입각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치개혁을 약속 받

고, 유권자의 거부권과 선택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유권자 혁명을 실현시킬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정치의 절반의 책임이 유권자에게도 있음을 자각하고 참여와 행동을 통해 정치를 바꾸나갈 것을 선언한다. 피동적인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행동하고 참여하는 정치문화의 생산자로 우리 스스로를 탈바꿈할 것이다. 지역주의와 연고를 중심으로 한 선거문화를 탈피하고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함께 변화하는 정치개혁운동의 선봉에 설 것을 청년단체와 청년, 대학생의 참여를 제안한다.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인디문화 활동가

지지선언 및 공연

총선연대 지지 기자회견

3월 14일 오전 11시

홍대 앞 클럽 <마스터플랜>

총선연대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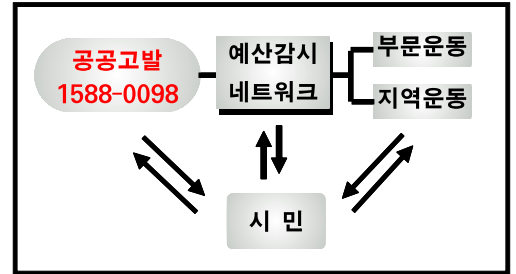
인디음악 동시다발 봉기의 날(예정)

3월 26일(일)

홍대·신촌 주변 클럽 10~15 곳

● 문화개혁감시센터

이번에 출범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이후에도 납세자의 권리확대와 정부의 예산감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자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형성될 때만이 재정민주주의는 현실화 될 수 있다.



● 시민자치문화센터

시민자치문화센터 청소년문화위원회에서는 ‘10대 하위문화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문화일보>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신문에 게재될 예정이다. 기간은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약 한달간 주 2회씩 총 9회에 걸쳐 연재되며 각각의 주제 및 연구자들은 아래와 같다.

주제	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글 : 청소년 하위문화의 지형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우리가 학교을 버린 이유 : <민들레> 탈학교 아이들의 주장	고길설(월간 <문화연대> 편집장) 공동연구 : 서민정(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간사) 서화진(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간사)
문화의 집으로 놀러오세요 :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의 아이들	김성일(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 : 서민정(상동) 고재란(문화연대 자원활동가)
우리는 문화생산자다 : 10대 문화생산자들	권경우(문화연대 정책위원회 간사) 공동연구 : 윤형주(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우리는 만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 10대 ‘코스튠플레이’의 욕망	김상우(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 : 이소연(연세대 인문학부 3학년)
핸드폰, 인터넷, DDR : 디지털 도시부족들	이원재(문화연대 정보화팀장) 공동연구 : 김성운(<일탈기록> 웹 마스터)
공장의 불빛을 가로지르는 가리봉동의 10대들	김일란(<일탈기록> 편집위원) 공동연구 : 김성희(<일탈기록> 편집위원)
화양리에서 만난 10대들 : 철가방, 비끼, 폭주족, 봉달이족들	민병직(아트센터 선재 큐레이터) 공동연구 : 서민정(상동) 임승식(중앙대 청소년학과 석사과정)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성은 10대 때 배웠다 : 청소년들과 성윤리	필자 : 이동연(상동) 공동연구 : 김일란(상동) · 고재란(상동)

또한 5월 26~27일에 걸쳐 진행되는 ‘거제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전체 기획에 대한 자문, 평가, 행사 후 전체 평가 보고서 작성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문화위원회는 미술 전시 부분의 프로그램 구성을 행사 주관단체인 <거제YMCA>에 제안하였으며, 행사 당일에도 직접 프로그램 진행을 책임질 예정이다. 미술 부분의 프로그램은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미래도시 꿈꾸기’, ‘석고 프린팅’, ‘N세대들의 교복 페스티벌’, ‘벽과 현수막에 그리는 우리들의 꿈’, ‘몸으로 느끼기’, ‘마음으로 전달하기’ 등의 행사로 구성되어, 해변에서 모래로 도시를 만들거나, 거리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 교복을 직접 꾸며보는 등 청소년들의 직접적·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전시외 행사로서 ‘문화와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어 지역 중고교 선생님들과 거제 YMCA 관계자들과 함께 거제지역의 청소년 문화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방송법 관련 현황

결 으로는 방송위안이 꽤 받아들여진 듯하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월 60분에서 100분으로 늘린 것 △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서 예외규정을 없앤 것 등이 그런 예들이다.

하지만 애초 이와 관련한 문화부안의 문제점이 워낙 많이 지적된 터라 '생색내기' 냄새가 짙게 풍긴다. 반면 최대 관심사였던 문화부와 방송위의 정책합의 부분은 문화부 뜻대로 됐다. 방송위는 애초 포괄적인 5개항의 문화부안을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끼치는 방송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등 3개항으로 구체화시켰는데, 이 안이 안 받아들여진 것이다. 곧 방송사업자 구도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그대로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지역민방이 사실상 <에스비에스>의 네트워크화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특정 민방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50%로 못박고 유예기간을 2002년 말까지로 둔 것도 문화부안의 50~85%로 느슨해졌다. 현 임기 안에 편성비율을 50%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송위안조차 후퇴시킨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한선을 예외 없이 6%로 규정한 방송위안도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의 경우 <문화방송>의 3분의 2를 걷는 것으로 후퇴했다. 장애인을 위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선거방송 의무화 조항도 임의 규정으로 완화했고, 종합·보도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때 방송위가 조정권한을 갖는 것도 시행령에서 빠지고 방송위 규칙으로 정하게 한 것도 대표적 개악으로 꼽힌다. 이에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 2일과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더 이상 방송법을 훼손하지 말고 새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최대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위도 7일 국무회의 의결 전에 방송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방송위 노조는 '예산이 아닌 방송발전기금에서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민간이 신문이 보장된다'며 방송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일 이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하지만 4일 차관회의에서는 민간인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만큼 방송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4명은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인 신문의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나오는 점에 비춰, 국고 지원이 반드시 공무원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준상 기자, 한겨레 3월7일자)

● 도서관 개혁 캠페인 관련

문 화연대 도서관출판위원회에서는 3월 10일부터 (가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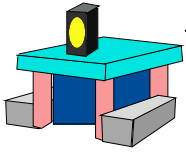
아 더 이상 도서관을 방치해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지식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어진 자세로 올바른 도서관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화연대의 생각이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이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충분한 자료구입비를 배정하는 것이 정부 문화, 교육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자료구입비 증액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문화, 교육서비스의 하나인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하는 핵심적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더 이상 도서관 본질을 비껴 가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 투자가 아닌 근본적인 도서관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민들의 만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대폭 증액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 문화연대는 정보화의 핵심기관이며 새로운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인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하는 시도로써, 국민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와 문화서비스를 얻기 위한 주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 전문가/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캠페인을 펴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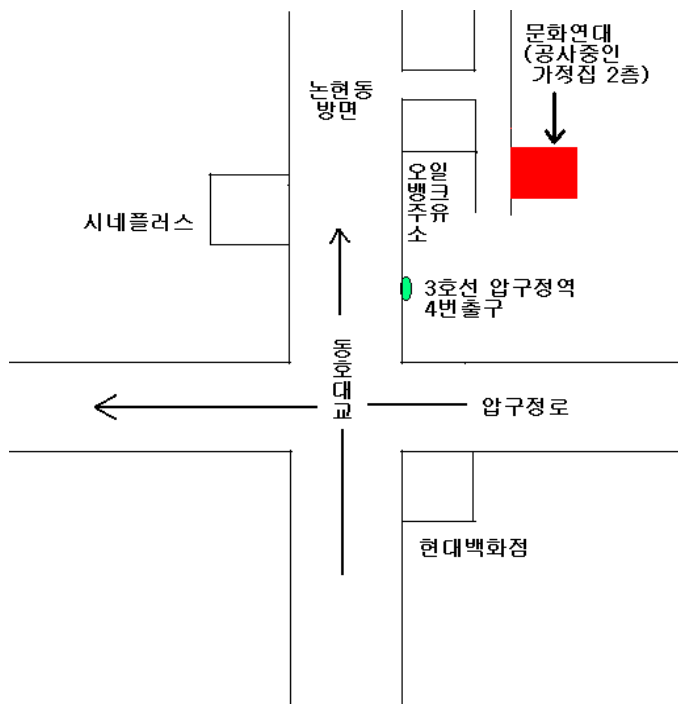


문화연대가 사무실을 압구정동으로 옮겼습니다 !!

새로운 사무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9-29”입니다. 지금부터 찾아오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의 4번 출구로 나온다 → 직진 80M, 오일뱅크라는 주유소 발견!! → 주유소를 끼고 우회전 한다 → 커피숍 자택이 보인다 → 자택 바로 오른쪽에 2층 주택처럼 생긴 건물 발견 → 그 건물 2층이 ‘문화연대사무실’ : 1층은 ‘씨네나라’라는 카페가 생길 예정, 현재 공사중.

그래도 모르시겠다구요? 그림을 그려드리지요!



당신을 문화연대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

문화개혁을 위한 행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민문화 네트워크의 자치를 경험하면서 당신 자신의 ‘문화정책’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 회비 : 3000원
계좌: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국민은행
352-25-0003-021
한빛은행
790-265223-01-001

문화연대 게시판

문화연대 『금요포럼』

주제 : “여성운동 / 문화운동 / 그 사이”

강사 : 이해경 선생님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일시 : 3월 17일 (금)

장소 : 인사동 ‘대안공간 풀’

4.13 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일시 : 3월 15일 (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종로 5가)

주관 : 민주노총, 민교협, 사회진보연대

제2회 영화인포럼

일시 : 3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 카페 씨네나라

(문화연대 사무실 1층)

주제 : 영진위 영화진흥정책 검토

방송법 시행령 검토 외

주관 : 영화인회의

문화연대와 함께 할

자원활동가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화연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의 일상업무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운동가

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773 - 7707 / 3445 - 7708

acc21@chollian.net